| 불자 세상보기 |

과로사회 대한민국, 치유가 필요하다



김형중
동국대부속고 교장

일은 많고, 못 쉬고, 고독한 사회
'N포세대', 불안한 미래를 반영해
10년 전보다 여가시간 30분 줄어

인간은 일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 돌려줘야

불교계도 사찰 內 미술관 등 유치해
휴식 여가활동 공간 제공 노력해야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국운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나라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북한 핵무기와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과의 국가 외교가 흩어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온 국민들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나라의 위기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륵 구세불과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데 재화를 얻는다. 직업은 삶의 기본 수단이다.

여기에 비해 여가활동이란 생업을 위한 직장의 일을 떠나 자유롭게 여가시간에 취미와 오락 활동,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와 여행 등 휴식활동을 통해서 삶의 여유와 활력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 여가활동은 경제력에 의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돈을 쓰는 활동이다.

세계 경제 10대국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점점 활기를 잃고 우울하게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혼자서 밥과 술을 마시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N포세대 · 혼밥 · 혼술 등 우울한 신조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요즘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직장을 구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쉴 틈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불안한 미래 탓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30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3명 중 1명이 만성두통으로 시달린다고 한다. 스트레스성 두통환자가 최근 10년 새 급작스럽게 늘었다. 며칠 전에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여성 공무원이 밤 10시까지 초과근무하는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젊은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간을 도둑질하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

삶의 활력을 재충전해야 할 여가시간을 혼자서 골방에 누워서 돈이 들지 않는 TV만 보는 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쓸모없는 시간에 투자하는 '스펙쌓기'에 엉뚱한 시간을 낭비시켜 돈과 시간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런 족쇄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찬 여가시간, 가슴이 뛰는 희망이 가득 찬 여가시간을 만들며 살아가야 행복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비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영화 · 연극 · 음악회 · 미술관 관람권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사회는 활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사찰 안에 미술관과 음악회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찰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예 · 다도 · 꽃꽂이 · 요가 · 산사 둘레길 등을 개발하여 산보와 등산 등을 할 수 있는 휴식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시간을 저축해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행복을 느껴야 할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시간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社說

수행열풍, 유행으로 끝나선 안 된다

도심에 위치한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참선수행 열풍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명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남방불교 수행단체들의 국내 진출 등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과정이야 어떻든 분명 현재 한국불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에서 불자 중 70%가 실천 중인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있다'고 답한 불자들 중에서도 간화선은 고작 4%였다. 불과 몇 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수행열풍은 불자감소 위기에 빠진 한국불교가 잘 활용해야할 기회다.

다행히도 참선반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법사를 상주하게 해 대중으로부터 호응이 높다. 인원 제한에 걸려 대기순번을 받은 불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다. 어느 사찰에서는 참선에 관심이 있어 등록한 참가자가 불교에 심취해 불교대학까지 다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이제는 이 같은 선사례를 더 많은 사찰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수행공덕을 쌓은 불자들이 제대로 회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도록 불교계 전반적으로 성찰하며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불교계에 덕 높은 선승이 지금보다 많이 배출돼 재가불자들을 이끌고, 수행문화 확산에 앞장서야만 한다.

현대사회의 문화 소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그래서 이 수행열풍이 단순한 유행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불교계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할 때다.

은퇴자출가로 대안 출가 길 열자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부결된 은퇴출가제도가 대폭 수정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월 20일 열린 3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종회에서 문제된 은퇴자 출가자의 지위를 수행법사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승려에 준하는 지위'로 변화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계품수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종무직 취임 등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은퇴출가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행자로서 3년간 사찰서 공동생활을 한 뒤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출가독신자인 경우 갈마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이때 출가독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자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미(니)로서 10년간 수행정진과 교화활동을 한 자에 한해 갈마를 하고 구족계를 수계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은퇴자출가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결과이다.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출가방식과 함께 대안 출가 방식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은퇴자 출가 수정안은 이런 시대 조류를 반영한 것이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은퇴자 출가이든 전문가 출가이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이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제일 중요한 출가 진흥 정책은 양이 아닌 질이다. 뛰어난 자질의 출가자가 들어와서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다익선보다는 소수정예가 더 용이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인재가 출가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 승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단상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이하 도깨비)'가 지난 1월 21일 종영됐다. 케이블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인 20.5%를 기록했고, 모든 광고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주인공 도깨비 김신 역을 맡았던 배우 공유 역시 향후 4개월 동안 광고 촬영만을 해야 할 정도다. 해외 판권 역시 세계 각국에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은 어떨까. 우선, 드라마 '도깨비'를 일부 보수계열 개신교도들은 매우 불편한 시각으로 봤다. 개신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일부 기독교인이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드라마 '도깨비'가 '사탄', '종북'과 관련 있다는 글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불교계의 경우 촬영지였던 석남사,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등 문화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실 '도깨비'는 잘 만들어진 '종교적 배경의 드라마'이다. 정확하게 한국의 양대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배경으로 혼합돼 있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가장 큰 배경은 불교의 윤회설을 기반하고 있으며, 절대자인 '신'에게 부여받은 전능한 힘을 가진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나온다. 또한 극중 인물들의 꼬일대로 꼬여있는 운명과 인과는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한국 전통 신앙인 도깨비, 저승사자, 삼신할머니를 소재로 하면서도, 이면에서 서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을 대하는 태도는 다분히 기독교적이다. '저승은 유턴'임을 알리고 나서는 문에 나타나는 계단은 천국으로 향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울 시내의 수많은 교회 십자가들이 오버랩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드라마 '도깨비'는 윤회전생, 인과, 결정론을 바탕하면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더했다.

이는 극중 인물의 대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도깨비가 극 초반에 던지는 "보통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 한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것을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라는 대사나, 류덕화에게 빙의된 신이 "신은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운명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 답은 인간들이 찾는 것"이라는 대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드라마의 마지막, 명부에 없던 지은탁이 자신의 의지로 아이들을 구하고 죽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행동이었다. 망각의 차를 마시지 않고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지은탁의 선택도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비극적 운명'을 가진 도깨비 신부가 절박함으로 도깨비를 불러냈던 것처럼 드라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여주기 위한 극의 배경과 장치로 '종교'들은 사용됐다. 일종의 '이미지 소비'로도 볼 수 있다.

종교가 미디어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특별한 시대는 아니다. 다만, 미디어는 부단히 종교를 소비하지만 이렇게 소비된 종교는 새롭고 창조적인 종교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드라마 '도깨비'는 찬란했지만, 이면에는 '종교 소비'라는 쓸쓸함도 존재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